

이슈

2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094호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D-92

올림픽·AG 등 20개 종목 100개국 4000여명 방한

국제경기연맹총연합 후원 세계 유일
대회기간 국제무예엑션영화제도 열려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시중 충북도지사·서정진 쉐르리온 회장)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2016년 청주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될 세계무예마스터십은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가 후원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 무예 경연장이다. 장차 ‘무예 올림픽’으로의 성장을 목표한 만큼 2021년 예정된 3회 대회부터 해외 개최를 추진 중인데, 중국 우시가 유력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충주 일원의 9개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참가규모도 상당하다. 100개국에서 약 4000여명의 선수단이 방한한다. 참가 종목은 20개로 결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연합회(ANOC)와 세계 3대 스포츠 기구로 꼽히는 GAISF에 속한 태권도와 유도, 무에타이, 사바테, 우수, 삼보, 합기도, 주짓수, 벨트레슬링 등 9개 종목과 카바디, 크라쉬, 펜칸실랏 등 아시아권 3개 종목 등이 마스터(Master·무예 종목별 최고수)를 가린다. 그 외에 전통무예 8개 종목(택견, 씨름, 용무도, 통일무도, 한국합기도, 기사, 기록, 연무)이 참여해 대회를 빛낸다.

특히 GAISF의 후원 의미가 크다. 전통무예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대회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 GAISF 어소시에이트 멤버로 2020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성사되면 동·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이에 조직위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게 각각 명예대회장, 대회장을 맡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GAISF 스테판 폭스 부회장도 5월부터 공동 부위원장으로서 활동 중이다.

대회 기간 스포츠 거물들이 대거 방한한다. IOC에서는 ANOC 아시아대륙부회장을 겸하는 위자이칭 부위원장과 유승민 선수위원 등 9명이 참석하고, GAISF 라파엘 기울리 회장이 한국을 찾는다.

참여 종목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유도와 크라쉬, 기사 종목 등이 세계선수권대회로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한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수준 높은 경기가 예상된다. 이시중 위원장은 “무예는 민족혼과 호국정신이 깃든 전통문화다. 국민의 심신단결과 화합, 단결에 기여하는 대회가 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대회기간 충주 일원에서 국내외 유명배우 200여명이 참석하는 2019국제무예엑션영화제를 열어 국민적인 관심을 높여갈 예정이다. 무예를 주제로 한 영화제는 올해가 최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FIFA U-20월드컵 | 김현우 극적인 헤딩 결승골…한국 첫 승, 남아공은 넘었다



한국 U-20 대표팀이 29일(한국시간) 폴란드 티히 티하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전에서 후반 23분 김현우(가운데 왼손 주먹 전 선수)의 헤딩골이 나오자 함께 뒤엎겨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김현우의 머리·이광연의 손 16강 불 밝혔다

후반 중원싸움서 우위 주도권 잡아
수비수 김현우 정정용호 첫 골 포문
후반 발목통증 교제…큰 부상은 피해
GK 이광연은 위기마다 눈부신 선방



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잡고 첫 승을 신고했다.

한국은 29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티히의 티하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후반 23분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1승1패를 기록한 한국은 포르투갈과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득실차(한국 0, 포르투갈 -1)에서 앞서 2위에 올랐다. 같은 조의 아르헨티나는 이날 포르투갈을 2-0으로 꺾고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조

U-20월드컵 F조 중간 순위 (한국시간 29일 현재)					
국가	승	무	패	승점	득실차
1 ★아르헨티나	2	0	0	6	+5
2 대한민국	1	0	1	3	0
3 포르투갈	1	0	1	3	-1
4 남아공	0	0	2	0	-4

※ ★는 16강 확정

기 확정했다.

주연은 ‘골 넣는 수비수’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와 ‘거미손’ 이광연(강원)이었다. 김현우는 극적인 헤딩골을 터뜨렸고, 이광연은 위기마다 눈부신 선방을 펼쳤다.

전반만 놓고 보면 한국의 플레이는 답답했다. 남아공의 스피드에 눌렸고, 조직력에서도 밀렸다. 남아공은 한국 수비진의 뒷공간을 노리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불안감이 짙어질수록 골키퍼 이광연이 돋보였다. 전반 21분 세트피스 상황

에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상대 슛을 막아낸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다. 특히 비가 온 탓에 그라운드와 볼이 미끄러웠지만 이광연은 잘 버텼었다. 이광연은 경기 종료 직전에도 상대의 헤딩을 몸을 날려 막아냈다.

이번 대회 한국대표팀의 최종엔트리에 선발된 골키퍼는 이광연과 최민수(함부르크), 박지민(수원) 3명이다. 각자 장점이 뚜렷해 대회 개막 이전까지만 해도 주전 골키퍼가 누가 될지 모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대회 개막과 함께 1차전 장갑을 낀 주인공은 이광연이었다. 그는 2차전까지 뛰며 ‘넘버 원’ 자리를 확실하게 굳혔다.

이광연의 선방 덕분에 후반 시작과 함께 한국은 달라졌다. 전반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웠다.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지키며 주도권을 잡았다. 상대는 전반과 달리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후반 23분 승부를 갈랐다. 상대 페널티 박스 밖에서 김정민(FC리퍼링)이 날

린 슛이 수비수 맞고 굴절돼 높게 떠오르자 골문 앞에 있던 김현우가 몸을 비틀며 머리를 갖다대 헤딩을 했다. 공은 상대 골문 구석으로 절묘하게 빨려 들어갔다. 이번 대회 한국의 첫 골이자 이날 경기의 결승골이었다. 크로아티아리그에서 뛰는 김현우는 대표팀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

김현우는 3백이 가동된 포르투갈전과 4백으로 나선 남아공전에서 모두 선발로 나서며 대표팀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켰다. 후반 막판 오른쪽 발목 통증으로 교체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6월 1일 오전 3시30분 아르헨티나와 최종전을 갖는다. 이기면 자격으로 16강에 오르고 비겨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회 각 조 1, 2위는 자동으로 토너먼트에 오르고, 6개조 3위팀 중 성적이 좋은 4팀도 와일드카드를 받는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아르헨 전방 압박’ 극복이 16강행 열쇠

6월 1일 오전 운명의 아르헨전

포르투갈 잡은 아르헨 전력 막강
정정용호, 최소한 비겨야 16강행
맞춤형 수비 전술·선제골 승부수

반격의 1승을 거둔 한국 20세 이하(U-20) 대표팀의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

-20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29일(한국시간) 열린 대회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포르투갈에 2-0 승리를 거두며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은 다음달 1일 오전 3시30분 폴란드 티히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격돌한다. 한국(1승1패)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첫 경기 상대였던

포르투갈 못지않게 스피드와 개인기가 좋은 팀이다. 조별리그 2경기에서만 모두 7골을 뽑아냈다. 패스플레이 뿐 아니라 190cm의 장신 스트라이커 아돌포 가이치(산 로렌조)를 활용한 공중 볼 싸움에도 장점을 갖고 있는 등 다양한 공격루트로 많은 골을 뽑아내고 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강력한 압박 축구를 구사한다는 점이다.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고, 기회가 생기면 빠른 역습으로 이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개인 능력이 좋은 포르투갈 선수들도 아르헨티나

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쉽게 풀지 못했다.

승점 확보가 절실한 한국 입장에서는 수비를 견고하게 하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어느 때보다 선제골 싸움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주장으로 수비라인을 이끌고 있는 파드리시오 페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교능적으로 한국전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은 다행이다. 페레스는 2018러시아월드컵에 훈련 멤버로 발탁됐을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주목하는 수비 유망주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생충 오늘 개봉… 첫 주말 손익분기점 예상

(150억 원)

6월엔 프랑스·애플 시장서 개봉
뉴욕타임스 “아카데미상 후보”



기생충

전 세계 각 권역 국가들과 배급 판권 계약을 맺어 192개 지역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6월5일 프랑스에 이어 6월 말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으로 영역을 넓힌다. 11월 북미 개봉까지 올해 해외시장

‘기생충’(제작 바론손이앤에이)은 칸 국제영화제와 함께 문을 연 칸 필름마켓에서

에서 관객에게 다가선다.

그 힘은 칸 국제영화제 수상이 증명하는 작품의 완성도와 그에 따른 호평에서 나온다. 영화제 기간 해외 유력 언론들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30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50%가 넘는 예매율로 흥행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해외시장 성과를 가늠케 한다. 국내에선 개봉 첫 주말을 지나며 350만여 관객을 동원, 제작비 규모 150억 원을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품에 대한 전 세계 언론과 평단의 호평에 힘입어 ‘기생충’은 내년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로도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영화가 매년 도전해온 외국어영화상 부문은 물론 감독상 등에 후보로 지명

될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충격적인 방식으로 계급문제를 다룬, 봉준호 감독의 최고 작품이다”면서 내년 아카데미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로 꼽았다. 버라이어티도 “봉준호는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르는 첫 한국 감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생충’은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등이 가난한 집안 사람들과 부딪질 가족이 얹히고설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드라마와 코미디, 스릴러와 미스터리, 공포 등 장르적 색채를 아우르며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